



제목	Iran at War: 1500-1988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sprey Publishing
발행일	2011. 5. 24.
저자	Kaveh Farrokh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480
ISBN 또는 ISSN	978-1846034916

내용 요약

이 책은 1500~1988년까지 페르시아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감당했고, 어떻게 전쟁을 감행했는가를 설명한 글이다. 역사적, 심리적으로 전쟁을 설명하고 있고, 이란인들이 오늘날의 위협과 도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1501~1736년의 사파비조, 시아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삼고 수니 이슬람, 유대교인, 조로아스터교인에게 개종을 강요한 시기부터 시작한다. 사파비조의 창건자이자 우즈베크, 포르투갈, 오스만투르크에 대항해 전쟁을 한 이스마일 1세는 수니파에게 무자비한 군사령관으로 보이지만 그의 병사들에게는 우수한 군사령관이었다. 압바스 1세 치하에 페르시아 군대는 강력했다. 사파비조의 시아 이슬람과 수니 오스만제국 간의 갈등을 군사적으로 강력한 사파비조 탓으로 돌리고자 했던 유럽의 군주국의 음모들을 밝힌 것에 이 책의 의의가 있다.

나테르 샤는 코끼리 부대 내에 낙타를 사용하는 전술적 혁신을 행하였다. 타마스프 1세가 오스만, 아프간,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후 사파비조는 분열되었다. 나테르 샤는 페르시아 군대를 경무장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군대로 재조직하였다. 이 책은 나테스 샤 휘하의 장군이 설립한 잔드 왕조(1750~1794), 카자르 왕조(1794~1925)까지 담고 있다. 또 페르시아가 군대의 근대화를 위해 독일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영국과 프랑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면서 1차 대전에 대응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레자 팔레비가 이란의 국방력을 근대화하고, 1979년 혁명 이후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의 무기를 받아들이면서 이라크와 전쟁하는 과정도 서술하였다.